

전단지

이 오 례

동네 건널목 옆
언제부턴가 군더더기를 두르고
누군가를 위해
불빛의 연결을 떠받치고 서서
늘어가는 전봇대

길을 가다 한 번쯤은 전봇대의 몸
훑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성성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머니 허리에 붙어있는 파스처럼
붙었다 뗐다 반복된 자국들

덕지덕지 누군가 몰래 덧붙이고 간
갓가지 전단들
비가 오면
쭈그러지고 뜯기고 흐물흐물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

좁은 길 큰길 가리지 않고 걸어 다니는
일상에 끼어든 넘쳐나는 전단
조간신문을 들추자 녀살 좋게 튀어나온
광고 광고지들

전단지는 선전하거나 광고하는 글이 적힌 종이다. 신문 사이에 끼어넣어 무언가 알리려고 인간 힘을 다 쓰는 궁여지책이다. 동네 건널목 전봇대라고 예외는 아니다. 덕덕덕덕 파스처럼 붙었다가 쭈그러지고 볼품이 없다. 만들어서 그렇게 넣으려고 애를 쓰거나 거리에서 많은 양을 들고 서서 길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간절함이 배어 있다. 전단지는 일상에서 일정한 자리 하나 꿰차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윤제철)

베네치아

장수정

하루 종일 남부 아말피 해안 근처에서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고 북부 베네치아 그 유명한 산타루치아 기차역에 드디어 도착하니 저녁 8시이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알 수없는 집을 찾아 구글 지도에 힘입어 얼마 안 가니 바로 바다 물이 발밑까지 몰려 와 있는게 아닌가! 이게 웬일인가. 육지가 바다보다 낮다는 것인가 아님 해일에 의한 바닷물의 침수인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불연 듯 우리가 숙소를 잘못 찾아 온 것이 아닌가 불안이 엄습해온다. 그러나 듩직한 아들을 앞세우고 왔으니 잘못 찾지는 아닐 것이라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도시의 기이한 모습에 다소 흥분이 되었다. 더구나 이 숙소를 찾기 위해 아들이 밤을 세워가며 인터넷을 뒤져 그간 밥과 김치 맛이 그리워져 한인 숙소를 찾아낸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어렵사리 찾아낸 숙소의 주인장이 우리를 역까지 마중나와 주었다. 참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역시 동족이라는 민족의식에 더 가까워진 친밀감과 위안으로 오랜만에 편안하고 즐거운 밤을 맞이하였다.

조반을 불고기 멸치볶기 김치 콩나물 오이소박이 동그랑땡 된장국 --- 등으로 신선 여행은 한국 커피와 담소를 나누며 먹으니 마치 여기가 한국인 것 같다.

숙소를 나와 배 표를 하루 종일 투어 하는 것으로 사서 먼저 부라노 섬으로 향했다! 이곳 베네치아에서는 육로교통이 아닌 해로교통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배 버스와 배 택시 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배 택시를 타고 바다로 나가니 육지의 도로처럼 바다에 기둥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바닷길이 만들어져 있다. 그 길을 따라 바다 쪽을 향해 나오니 부라노 섬까지 가는 커다란 배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 배로 바꾸어 탄 우리는 넓은바다를 향해 대자연의 해양을 만끽하면서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르자 부라노 섬에 도착하였다.

부라노 섬에 도착하니 거기 있는 집은 알록달록 총 천연색으로 페인트를 칠해 놓았다. 안개가 자욱이 끼는 날이면 자기 집을 쉽게 찾기 위해서 각자가 남의 집과 다르게 원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 놓는 것이라고 한다.

브라노섬은 인공섬으로 온 도시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관광 상품 가게나 음식점 등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땡벌레 지치고 마른 목을 축이느라 긴 줄을 섰다.

베네치아는 많은 인공섬으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그 중 118개의 섬이 유네스코가 정한 문화재이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집에 페인트를 칠 하려고 해도 집 내부는 마음대로 칠을 해도 외부는 마음대로 못 한다.

오후에는 성 마르코 성당을 방문하였다. 이 성당의 광장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곳 역시 밀물때를 만나 성당 광장에는 서서히 바닷물이 솟아 오르고 있었다.

놀랍고 신기한 나머지 가이드에게 물으니 이곳의 모든 건물들이 물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 이 수상 건물들의 건축방법은 수심 5m 아래 해저면에 지름 30cm 되는 나무 기둥을 여러개 박고 그위에 모래, 자갈 등으로 땅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그 땅이 굳으면 그 위에 집이나 건물 등을 짓고 길을 닦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도시이다. 매일 처럼 두 차례의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데 인공 땅에 그 높은 건물과 주택들을 지어 살고 있으니 말이다.

저녁이면 바닷물이 집 앞까지 차올라 왔다가 아침이면 바닷물이 빠졌다는 반복해가면서 수백 년 동안 살아오고 있다니 참으로 놀랄만한 도시이다. 이태리 사람들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무역과 금융업이 발달하여 위함을 무릅쓰고 베네치아라는 인공섬을 만든 것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각 건물이나 길을 찾아가기 위해 무려 400개의 다리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인간의 지혜와 기술과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놀랍기 그지없다. 그리하여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는 말이 왜 나왔는지 어렵פות이 짐작이 간다.

이튿날 성마르코 성당을 또 찾았으나 주일 미사를 드려야 하니 성당엔 출입이 일반인에게는 허용이 안 되었다. 성당 바로 옆의 전망대에 올라 시원하게 트인 베네치아 전 도시의 모든 풍경을 내려다보니 참으로 장관을 이루는 도시였다. 왜 118개나 되는 섬을 유네스코가 문화재로 지정했는지 그 이유를 알 것만 같다.

통일된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색과 똑같은 기술로 지어진 건축물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어디선가 베토벤의 교향곡 ‘합창’이 들려오는 듯 황홀하다.

신기하고 아름다운 도시, 베네치아의 물의 도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으로 잘 알려진 도시, 비발디의 고향으로 ‘사계’가 일년내내 연주되는 도시, 명곡 ‘산타루차야’ 를 탄생시킨 도시 그 곳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 할 것이다.

베네치아, 베네치아여 영원하라!